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목포 시정소식

2020년 3월 Vol.79



|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



목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낭만항구'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매력적인 목포시 브랜드

맛의 도시 목포 A CITY OF FLAVOUR MOKPO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 목포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도시답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로 가꾸어 가고 있다.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

도시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전국 최초예향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

전국 최초로 '예향(藝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목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cittaslow 사람과 자연의 조화 국제슬로시티 목포

가장 한국적이고 목포다운 콘텐츠로 국내 16번째 국제슬로시티가 된 목포의 무대는 이제 전 세계다.

낭만항구 **목포** 시정소식

CONTENTS

2020년 3월 Vol.79



05 기획특집

목포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쾌거'
목포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10 이슈 in 목포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낭만항구 목포
원도심일대, 지나온 100년 위에 새로운 100년 미래도시 세운다.
꽃피는 봄날, 국내 최장거리 해상케이블카 타러 오쇼잉~
사계절 꽃 피는 삼학도
'친수 관광·해양레저 공간' 부활 꿈꾸는 평화광장
해변에 반하고 맛에 반해요! 해변맛길 30리 조성!



16 포커스 in 목포

새롭게 목포가 뜬다!
범시민 '목포사랑운동' 1천만 관광도시 이끈다.
2020 주요시정, 이렇게 운영합니다!

19 뉴스 in 목포

시정소식 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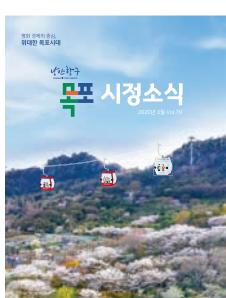


22 목포 더하기+

정책소식
의정소식
우리동네소식
생생정보마당

33 통(通)하는 목포

참여마당



Cover Story

봄꽃으로 가득한 유달산 전경



발행처 목포시 편집인 공보과 발행일 2020년 3월
주 소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전 화 061)270-8539
목포시정소식지는 <http://www.mokpo.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www.facebook.com/mokpo.kr
- instagram.com/mokpocity_story
- blog.naver.com/mptour123
- story.kakao.com/ch/mokpocity
- youtube.com/c/mokpocity

■



목포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쾌거’

‘목포 관광 잠재력’ 대한민국이 인정했다.
전남 관광지도 바꿀 글로벌 관광 도시로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투입 관광분야 최대 국가사업”

목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 1월, 전국 유수의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관광 거점도시’에 당당하게 선정됐다. 이번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목포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남의 관광지도를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포관광의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관광거점도시 목포, 그 배경은?

“전략적·지리적 관광 요충지, 차별화된 근대역사문화 자원 풍부”
“서남권 9개 시·군과 연계협력 통한 확장성 호평”

목포시는 대한민국 근대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자산과 콘텐츠, 맛의 도시, 예향의 도시, 슬로시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발전 가능성,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확장성,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H자 축의 동서 양대 축을 이루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등 강점을 부각시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호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에 함께 경쟁했던 다른 지역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관광도시였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뚝심 있게 추진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노력으로 얻어진 쾌거라는 점에서 더 옥 의미가 크다.

글로벌 관광도시 첫 발 내딛은 목포, 그 비전은?

“2024년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1천5백만의 관광도시”
“인근 지자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연계 동반 성장”

특히,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환경과 안내 체계를 정비하는 필수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근대역사문화 공간을 도보여행의 메카로 육성한다. 일명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독특한 정취와 풍광이 뛰어난 목포 만이 갖는 독특한 자산이다. 목포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 어지는 곳이 원도심이다. 걸어서 근대역사문화 공간, 해상케이블카, 유달산과 삼학도, 갓바위 문화예술타운, 평화광장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 해안선을 따라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 바로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를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메카로 만든다는 게 목포시의 비전이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 선정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음식 문화콘텐츠, 섬 등 지역특화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원도심 재생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연계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돋보였다. 또한 목포시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취지에 부합했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표 中
(2020년 1월 28일)



목포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목포관광의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란?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글로벌(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세계 수준의 관광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치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각 거점도시에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국제관광 도시로 부산 1곳과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목포를 비롯해 전주, 강릉, 안동 등 4곳이 선정됐다.



목포시가 1년 동안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최대 성과물

“4대 관광거점 도시 목포 선정! 그 뒷이야기”

- 한반도 신경제지도 H자 요충지 아이디어 활용
- 9개 시·군 단체장 응원메시지 한몫

목포시의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지난 1년 동안, 조용하고 치밀하게 한편의 잘 짜인 감동의 드라마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계획은 작년 10월 중순 전국 지자체로 시달되었지만, 2019년 초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해 관광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국 유명 관광도시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목포시만의 차별화된 공모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공모 참여 자치단체 21개중에서 가장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의 경쟁도시들을 제치고 당당히 1차 심사에 통과했다. 또한 2차 현장 평가에서는 관광 비수기인 겨울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심사위원들에





둘째, 평화광장은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및 해양레저 거점으로 변신중이다.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되는데 춤추는 바다분수는 복합 문화예술 콘텐츠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해상불꽃 쇼를 펼치는 장관을 연출하게 된다.

셋째, 삼학도는 사계절 꽃피는 어린이 및 가족 친화형 테마정원이 조성된다. 여기에 낭만항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이 운행되고, 항구의 낭만이 가득한 포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갓바위 문화예술타운은 개별 문화시설과 연결하고 체험시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독창성 있는 뮤지엄 공간으로 만든다.

넷째, 목포의 맛을 세계인과 함께 나눌 준비도 하고 있다. 국제슬로푸드페스티벌, 9미의 세계화, 신메뉴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 세계의 미식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맛의 도시로 만들어 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목포만의 차별화된 섬 자원인 장좌도를 고급 해양관광 리조트로, 외달도·달리도를 바다정원 슬로시티 섬으로 가꿔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목포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이어 관광산업 육성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관광·수산식품·신재생 에너지로 설정 한 3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 목포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목포시 전 직원과 시민들이 일주일동안 사전 현장 리허설을 준비하며 이 또한 순조롭게 통과하였다.

마지막 1월 21일 서울에서 치러진 3차 PPT(프리젠테이션) 발표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15분 안에 목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다. 우리가 내세운 비장의 카드는 두 장!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H자 축 적극 활용’이고 두번째는 ‘서남권 9개 시군의 시장·군수 공조 출연’이다. PPT 발표 자료 첫 장에 목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넣어 H자의 동서 양대 축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이 신의 한 수였다.

특히, 전국 9개 지자체의 브리핑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로 PPT 발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서남권 9개 시·군 단체장의 응원 메시지였다. 이는 타 경쟁 도시와는 차별화된 발표 전략으로 목포가 서남해안권의 관광 거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이처럼 이번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목포시민과 목포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는 점에서 목포역사이래 최대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목포 수산식품산업 본궤도 오른다.

목포는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서남권 수산식품종합벨트(수산종합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지난 해 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 주요 골자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구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목포활어회플라자(구 해양수산복합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씨푸드타운, 종합수산시장 등 기존 시설과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수협이전) 및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기능을 확충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기능이 담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북항 배후부지에 서남권 수산종합타운 조성 본격화

- 총 314억원 사업비 투입, 2025년까지 시설물 완료

북항 배후부지에 건립될 ‘서남권 수산종합타운’은 3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산물 판매시설과 냉동냉장시설, 수산가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우선, 올 해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산물 판매 시설을 추진하고, 2022년 냉동냉장시설, 2024년 선어회 가공공장, 2025년 수산가공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든 수산시설의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산종합타운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한 수산식품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포수협이 이전할 수산종합지원단지 및 대양산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등과 함께 ‘수산식품융복합벨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양산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도 탄력

- 2022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가속도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필두로 수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사업’은 주요 수산물 생산 권역별로 가공, 수출, 연구개발, 물류기능 등이 서로 연계된 거점형 가공단지를 1,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시설로는 국제수산물 거래소, 가공공장, 냉동보관시설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특화품목으로는 김, 다시마, 미역 및 전복 등의 가공품이다. 금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한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1,68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29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국내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개발 탄력!

목포신항과 대양산단 일대가 지난해 11월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다. 목포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대양산단 조기 분양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민선7기 핵심공약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 거점 도시로 급부상

- 2029년까지 53조원 투입해 건설되는 발전단지 조성

목포가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국가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목포의 대양산단과 신항 일대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나주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목포시가 벨트화를 해야 신안 풍력단지, 태양광 단지 등과 연계해 화장성이 커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라남도와 산업통산자원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내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직내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목포시는 이 분야에 탁월한 인력을 선발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에너지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받는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9년까지 서남해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하는데 이에 발맞춰 목포신항은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신항 배후부지 및 대양산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의 거점으로 각각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올해 전남도와 함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철재부두 3만 톤급, 1선석) 및 배후단지(26만 7,000m²) 조성사업을 우선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70%의 분양률을 보이는 대양산단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산단 분양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 특화기업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이뤄져 에너지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 업체들의 입주가 쇄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될 신항배후부지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낭만항구 목포

목포 관광이 변화하고 있다. 맛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근대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발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복고와 추억의 레트로 관광 활성화로 낭만을 찾는 감성 여행자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됐다.



목포가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중심지로 우뚝 자리잡는다!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거점사업은 근대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의 차별화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주를 포함 서남해안권의 9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목포를 대한민국 서남해안권의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은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역사문화자원 관광 거점화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도보 여행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서 1897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네 번째로 개항된 항구이다. 그래서 목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 등록문화재가 잘 갖추어져 있다. 목포 자본으로 설립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제29호)을 비롯해 구 목포일본영사관(국가사적 제289호), 구 목포화신 연쇄점(등록문화재 제718-15호) 등 다양한 근대문화역사 자원이 있다.

특히, 목포의 대표 관광지인 평화광장부터 갓바위, 남항, 삼학도를 거쳐 다순구미길과 유달 유원지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까지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도보 여행길은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뉴트로 열풍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근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걸으며 오감을 깨울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등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보여행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도심 일대, 지나온 100년 위에 새로운 100년 미래도시 세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재 거리 활성화 사업

-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및 지중화사업,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 추진

목포시는 올해 목포를 보다 더 걷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양 축으로 삼아 원도심 일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와 지상 경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등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과 불량간판들을 1897년 개항의 거리 역사공간 컨셉에 맞는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한다.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구역의 청춘로 구간이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오거리에서 평화선구점까지 430m 구간에 걸쳐 건물 81동과 업소 112개의 간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목포 근대역사관 2관 일원 보행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인도 없이 차가 다니는 불편한 도로환경이 도보관광에 편리하도록 바닥과 디자인을 개선해나갈 계획

이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시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게 되면서 보행로 안전펜스, 벤치 등 보행 편의 시설과 교통 정보제공 시설 등을 설치한다.

모든 사업이 함께 완료되면 이 일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100년 전, 국내 중심지였던 목포가 앞으로 100년을 기대하는 국제적 도보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목포만의 목포다운 글로벌한 근대역사문화도시 조성을 기대해본다.



간판개선사업 사업대상지 위치도



■ www.mmcablecar.com
■ 문의전화 061-244-2600

꽃피는 봄날, 국내 최장거리 해상케이블카 타러 오쇼잉~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 고하도 관광인프라 확충

“고하도 2차 해안데크 조성 및 목화정원 및 체험장 조성”
“역사유적 공원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예정”

이순신 장군이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됐던 곳으로만 알려졌던 고하도가 목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비상하고 있다. 국내 최장 3.23km 목포해상케이블카의 고하도 승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섬 전체가 매일 북적인다. 목포시는 앞으로 케이블카의 반환점인 고하도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 힐링관광과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우선,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 승강장 주차장 인근에 생태체험 공원, 분수, 쉼터 등을 포함한 가족형 광장을 조성한다.

또한, 바다 위를 걸으면서 고하도의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1km 해안데크 2차분도 시설해 용오름길과 온전히 연결시켜 고하도 전체를 도보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목화정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목화체험관, 목화 테마 이야기정원, 바다전망길 등을 만들어 특색있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할 예정이다. 또한, 이순신 장군 유적 복원 정비 등 고하도 역사유적공원 조성도 계획 중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자원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다도해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및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올해 9월 개관 앞두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지역관광 활성화 등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장 3.23km

최고높이 주탑 155m 국내 최고 스케일!

지난해 9월에 개통이후, 해상 케이블카는 관광객 7백만 시대를 여는 기폭제로 작용하며 목포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의 매력포인트는 단연, 유달산과 고하도를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특히, 고하도 스테이션에서 내려 산책길을 따라 판옥선 전망대와 해안데크를 돌아보면 케이블카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여행이 된다.



삼학도에 관광유람선과 항구포차가 뛴다!

신흥관광명가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목포의 센트럴 파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옛 해경부두에서 ‘관광유람선’이 운행된다. 유람선은 300명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선과 100명이상 규모의 소형선 모두 2척이 운행된다. 운항코스는 평화광장-대불부두-학섬-용머리-신항만 세월호 거치현장-장좌도-목포대교-선착장으로 소요 예정은 1시간 30분이다.

또한, 목포시는 삼학도 관광 유람선 취항 시기와 맞춰 맛의 도시 목포만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할 ‘항구포차’가 운영된다. 지난달 25일부터 목포 항구포차를 운영할 운영자 모집에 들어갔다. 항구포차 운영자는 모두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선발하며 모집분야는 전통포차요리(목포9미), 한식·중식·일식·퓨전 등 외식요리(가족단위), 그리고 간식류(청소년) 총 3개 분야이다. 특히 위생·청결·친절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서류평가와 사업설명회, 음식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여기에 고요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재즈, 국악, 트로트 등 다채로운 내용의 낭만 버스킹 공연(매주 금·토 19:00~21:00)도 펼쳐져 예향도시 목포의 면모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삼학도에서 삼락(三樂)을 즐기자!

목포를 상징하는 전설의 섬 삼학도는 가족 친화형 관광거점으로 거듭난다.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꽃 피는 체험형 테마정원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학도를 해양문화체험의 최적지로 만들기 위해 바다과학관과 연계한 어린이 친화적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삼학도 평화누리정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며 국제 수목비 엔날레 전시관인 남도문예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삼학도 구)해경부두에는 낭만 항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이 운행되고, 고요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항구포차가 조성되면 삼학도에서 삼락(三樂)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가 된다.

이처럼 삼학도에 보고 타고 먹는 세가지 즐거움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객들에게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수 관광·해양레저 공간’ 부활 꿈꾸는 평화광장



서남권 최고의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조성

목포 평화광장이 대폭 변화된다.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평화광장을 탈바꿈하기 위해 평화광장 기능을 개선하고 춤추는 바다분수 리모델링을 통해 보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보행자 안전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해변과 광장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서남권 최고의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춤추는 바다분수 리모델링, 분수쇼 + 불꽃쇼 + 문화예술공연 복합화

또한, 목포의 명물 춤추는 바다분수도 분사장치 추가 및 레이저 확장, 관람석 확대 등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토요 불꽃페스티벌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바다분수로 재탄생 시킨다. 수상무대를 설치한 후, 바다분수 쇼에 예향 목포의 낭만과 감성을 품은 문화공연과 해상불꽃 쇼를 접목하여 국내 최초의 복합문화 콘텐츠를 만든다.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수상레저 만끽

매년 해양레포츠대회가 개최되는 평화광장은 목포 해양레포츠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2024년까지 평화광장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상스키, 바다수영 같은 해양레포츠와 요트, 보트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해상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 속 쉼과 휴식의 공간, 해양레저스포츠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밤이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분수쇼와 불꽃쇼, 그리고 예향 목포의 역량이 결집된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평화광장의 미래이다.

해변에 반하고 맛에 반해요! 해변맛길 30리 조성!

목포시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슬로우 워킹투어 시스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해안 풍경과 목포만의 매력있는 근대역사, 관광자원, 맛집, 문화·예술 공간을 연결하여 특화된 도보길을 만들어 맛과 멋을 즐기며 걸을 수 있게 야심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평화광장~해양대학교까지 해변맛길따라 도보여행길’

해변 맛길 사업은 5개 구간으로 11.7km이며 평화광장에서 시작하여 갓바위, 남항, 삼학도를 거쳐 동명동 친수공간을 지나 째보선창과 다순구미길과 유달유원지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에 이르는 걷는 길이다.

먼저 1구간은 평화광장에서 달맞이공원까지 특화된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 최초 초대형 부유식 춤추는 음악분수는 바다에서 물과 빛 음악의 하모니를 통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쇼를 볼 수 있다.

2구간은 남항구간으로 남해배수 처리장 협오시설인 배수구를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갈대숲과 철새의 서식지인 유수지, 바다어류 등을 관찰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성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구간은 삼학도 공원 구간으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계절 꽃피는 삼학도 테마공원과 연계해 노벨평화상 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 등을 조성하고 이야기가 있는 삼학도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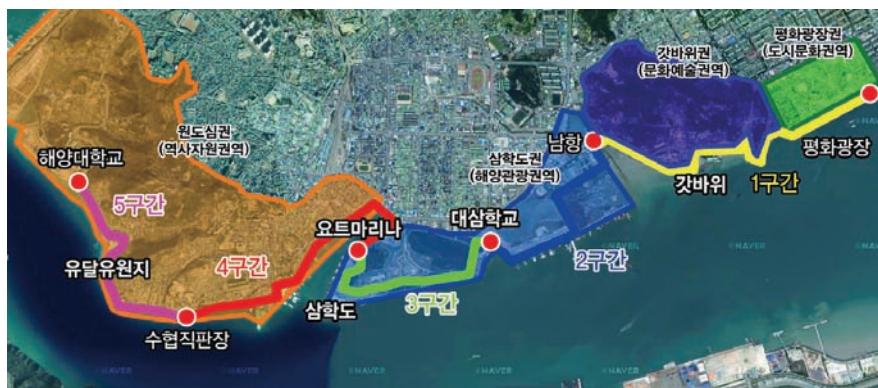
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4구간은 근대역사문화 공간과 목포권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홍어, 갈치, 낙지맛집 등을 조성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목포 9미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수협앞 도로변에는 디자인 이정표와 근대역사 문화자원 포토존을 설치한다.

5구간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힘입어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경관 디자인길과 전망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목포 바다의 풍광과 유달산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눈과 입이 즐거운 걷기 여행의 메카 목포로 오세요!’

5개 구간으로 나눠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곳은 구간별 특화된 도보길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산책로, 쉼터 등을 설치하고 구간별로 홍어삼합·세발낙지·민어회·꽃게무침·갈치조림·병어회(찜)·준치무침·우럭간국 등 지역대표 음식을 내놓는 맛집과 신세대를 위한 맛집도 생긴다고 하니 낭만항구 목포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임은 분명하다.



1구간 바닷가 미술관길

2구간 환경보호 생태길

3구간 온가족 나드리길

4구간 목포 개항역사길

5구간 젊은 연인의 길



새롭게 목포가 뜯다!

방송통신사 여행지 키워드 인기순위 기초지자체 중, 목포 1위 여행·예능 프로그램 SNS 여행지 키워드 전국순위 목포 15위

미디어마케팅 위력 발휘, 목포 관광도시로 급부상

목포시는 지난 1월 4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의 2019 여행트렌드 조사결과 ‘방송통신사 여행지 키워드 언급량’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또, ‘여행 예능프로그램 SNS 여행지 키워드 언급량’에서도 전국 15위에 올랐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지난 1년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의 각종 채널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여행지를 조사한 결과로 기본 순위에도 들지 못했었던 예년과 비교하면 매우 괄목할만 성과이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수행한 2020 해외 한류실태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1위가 목포근대역사관에서 촬영된 드라마 호텔델루나로 선정되어 향후 해외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위 서울, 2위 부산, 3위 제주……7위 목포……16위 여수
(방송통신사 여행지 키워드 언급량)

2019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선정! 5년새 여행자 7배 뛴 목포!

그동안 목포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프로그램은 100여 편이다. 이처럼 목포가 방송 및 드라마·영화 등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SNS와 같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와 함께 미디어 촬영 섭외 및 지원, 공모사업 선점과 네트워킹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최근 방송,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발길로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목포시는 한국 최초 관광산업 국제어워드인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2019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로 부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2015년 이전 목포 방문자는 연100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685만 명으로 5년 만에 방문자가 7배나 뛰었다.

범시민 ‘목포사랑운동’ 1천만 관광도시! 이끈다.

- 각 사회단체별 역할분담·시민의식개혁 운동 승화
- 위생업소·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 역점



목포시가 “천만 관광도시! 목포사랑운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20년을 1천만 관광시대 원년으로 삼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목포사랑운동을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한다.

‘친절·질서·청결·나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랑 실천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

꾸준한 운동의 실천 결과 지난 해 8월 실시된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목포시민의 친절도, 질서 의식, 시가지의 청결상태를 묻는 질문에 61%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 위생업소의 관행적인 호객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아 2020년은 위생업소 및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부서·1사회단체가 담당 위생업소를 연중 책임관리하는 110 운동, ▲SNS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이 방문소감, 친절업소·택시 등의 칭찬사례를 게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e-모바일 상품권 증정, ▲방송사 공익광고 동영상 및 UCC 공모 당선작 활용 홍보, ▲목포사랑운동 모니터단 확대 운영, ▲분기별 목포사랑운동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 ▲목포사랑운동 평가회 개최 등 다

양한 신규 시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통해 천만 관광도시를 달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목포 시민들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



2020 주요시정, 이렇게 운영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 도시로의 도약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 해상케이블카를 견인차 삼아서 해변 맛길30리를 조성해 원도심 역사자원과 연계한 도보여행코스, 슬로투어 콘텐츠 등도 개발하겠다.

해상풍력과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화



목포는 국가에너지산업용·복합단지 지정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주춧돌을 마련했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수산식품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목포에 필요한 기관 및 인프라 구축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사업,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비롯해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전철화사업과 압해~율도·달리도~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성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원도심 일대 리뉴얼, 도시재생사업 박차



근대역사2관을 리뉴얼하고, 1897개항문화거리 간판 새단장 및 전선지중화, 디자인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개선을 위해 해안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의 기폭제가 될 장좌도 리조트조성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섬 개발의 조화로운 슬로시티 완성



국제슬로시티의 핵심지역인 외달도와 달리도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바다정원을 조성해 매력이 넘치는 섬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율도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섬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겠다.

목포 문화예술 브랜드화, 문화예술도시 면모 증진



작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목포가을페스티벌은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모색해 예향 목포를 빛낼 문화예술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전문가의 기획과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축제·관광이 혼연일체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자리가 있는 복지도시



70%의 분양률을 기록 중인 대양산단에 에너지와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와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겠다. 또한, 노후된 사회복지관을 개보수하고 독거노인 보호 사업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20 목포항구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대한민국 유일의 항구축제라는 특별한 장점으로 발전가능성 재확인

목포항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0~2021년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지정됐다.

예비 문화관광축제는 발전가능성을 가진 지역 축제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에서 2년 주기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향후 2년간 문체부로부터 전문가 현장평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 생선시장인 파시를 통해 옛 목포 항을 재현한 '신명나는 파시마당' 등 항구만의 특색, 맛과 근대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율도·달리도 연결도로 국도 77호선 본격추진

목포 도서지역 육지화, 3월 중 실시설계 들어가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국도 77호선 해상교량 공사가 국비 4,82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개통구간인 신안 압해도부터 목포 율도와 달리도, 그리고 해남화원까지 13.4km 해상교량(2개소)과 해저터널(1개소)

이 만들어지면 섬, 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3월 중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하는 터키방식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맛의도시 목포, 으뜸맛집 지정

맛, 친절, 서비스 등 전문평가단 심사

목포시는 「맛의도시 목포」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등을 고루 갖춘 목포만의 대표 맛집인 목포으뜸맛집을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4개소 지정하였다. 목포하면 「맛있는 으뜸맛집」 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맛집마다의 향토스토리를 발굴해 가이드북과 지도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맛집 정보는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목포 대양산단 인기 상승! 분양 문의 잇따라!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에 들썩

목포 대양산단 분양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분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대양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로 지정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도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대양산단이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한 만큼 에너지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대양산단 분양 문의 : 목포시청 기업유치과 ☎ 061-270-8888

관광거점도시 목포, 더 안전한 도시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목포시는 안전한 목포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 사업은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구조 및 출동지원, 범죄·화재예방과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2020 목포문화재 야행, 문화재청 종합평가 ‘가’등급

우수 야행을 목표로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



목포문화재야행은 목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전문가 현장평가, 관람객 만족도 등 문화재청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27개 지자체 중 4곳)을 받았다. 올해 9월 18일부터 20일 까지 사흘간 유달·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금년행사는 전국 4대 관광거점도시 조성 및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글로벌 행사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문화재야행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실감형 콘텐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억 확보

목포근대역사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며진다. 근대역사관은 1897년 개항부터 현재까지 갯벌을 메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주고 증강현실(AR)그래픽과 구석구석 숨어있는 근대의 문화재들을 AR 도슨트(증강현실 안내원)가 해설하는 콘텐츠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은 중앙홀에 360도 미디어



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고, 테마별 인터랙션 자연사 체험존을 구성할 계획이다.

“청년이 당당한 목포!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개소



- 위치 목포시 해안로 237번길 33, 2층(구.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 운영시간
 - 월요일, 토요일 : 09시 ~ 18시
 - 화요일 ~ 금요일 : 09시 ~ 21시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이용조건 목포시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이라면 누구나!
- ▲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 061-242-1911

2020,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
2020년 크고 작은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시킨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고 하는데 태극문양 홀로그램을 추가하고, 각도에 따라서 하단에 흑백사진과 생년 월일이 나타나게 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2.9%) 인상된다.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 급여는 1,795,310원으로 책정되고 1인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직원 300명 이상인 곳에서만 시행이 되어왔는데 2020년에는 그 범위가 50명에서 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대형마트 내 자율포장대, 포장용 테이프·끈 제공 중지

자율포장대에 있던 종이박스 · 테이프 · 노끈 중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종이박스도 제외 품목에 포함되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종이박스만 허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박스포장에 사용되는 테이프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포장용 테이프·끈
제공이 중단됩니다!**



SELF

깨끗한 지구를 위해
준비구니를 사용해주세요!

차세대 전자여권

대한민국 여권이 32년만에 디자인이 바뀐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보안성을 새롭게 강화해 표지재질을 바꾸고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진다. 또한, 여권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삭제가 되며 여권번호 또한 영문 2개와 숫자 7개로 합쳐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증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카드 형태로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실시

2020년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 후 발생하는 거스름 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카드의 계좌로 거스름 돈이 입금된다는 방식이라고 한다.

우산비닐 사용 금지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1회용품을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 관공서에서는 2020년부터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급여는 3개월간 통상 임금에 80%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류광고 제한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에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게임 등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되고 술을 마실 때 나는 “크으~” 같은 소리도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되며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전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데이터 방송이나 DMB, IPTV 등으로 확대된다.

LH행복주택건설 인근 주민고충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구)목포법원·검찰청 부지에 LH행복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공사현장 인근 주민고충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공사소음, 먼지, 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은 LH가 행복주택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화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진출입로를 소방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도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됐다.

김휴환 의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LH가 공사소음, 먼지, 진동 등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 전통시장상품 사주기 운동



설명절 시설방문



목포시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방문 위로격려

목포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부터 지역민의 보건을 위해 연일 과로로 시달리고 있는 기관을 방문 위로했다.

이날, 김휴환 의장은 “날씨도 추운데 비상근무하느라 힘들고 지치겠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을 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소독, 예방 홍보,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목포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난국이 극복될 때 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6개소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 직원 위로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



설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보건소로부터 일일보고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안전에 최우선에 두고 의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목포시의회,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진행된 제35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을 처리 하였다

주요 가결안건은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가 달라지고 있다! 낭만항구 목포 등 도시브랜드 마케팅 성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2020년 목포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목포시, 목포시의회, 목포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포시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현장방문



/ 관광경제위원회 /

경사지토사유출 현장방문



/ 도시건설위원회 /

목포더하기+

■ 우리동네소식

우리동네소식



훈훈한 「사랑의 쫌도리 쌀모음」 운동 추진



용당2동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조직연합은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사랑의 쫌도리 쌀 모음」 운동을 추진하였고, 이 모금액으로 저소득가정 및 경로당 3개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쌀(10kg) 76포를 전달하였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실시



용당1동

용당1동에서는 지난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생조직, 동부시장 상인회가 연합하여 마련한 백미(10kg) 130포를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주민들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 전개



연동

연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매월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아·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해장학회에서도 관내 저소득 및 투병환자 세대(2~3세대)에게 매월 세대당 20만원씩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목포사랑 나눔활동 펼쳐



산정동

산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은성호)에서는 저소득가정에 쌀 100포, 사골 100팩 등을 전달하였고 조약국(약사 조기석)에서는 저소득가정 출산부와 경로당에 영양제를, 수림풀리워(대표 박민수)에서는 민원용 봉투 5,000장을 기탁했다.

권역별(동) 현장순회 간담회 개최



연산동

2.3.(월)~ 2.11.(화), 총 7회에 걸쳐 관내 경로당, 백련지구 상가 등 1통부터 19통까지 권역별로 순회 방문하여 주요 시정 현안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총 20여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및 처리 진행함으로써 주민들과 거리감 없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원산동 기부천사 오찬 및 시정 현안사업 홍보 간담회



원산동

작년 한해 소리 없이 사각지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 412가구 및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17개소에 돼지고기, 쌀 등 생필품 총 82회 후원(39,481천원)을 해 오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시정 역점 3대 전략사업 등 시정 현안사업들을 홍보하였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홍보 및 동 자체방역단 구성



대성동

대성동장 외 직원들은 관내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설명하며 마스크를 전달하고 안내 포스터를 경로당 내 곳곳에 게첨하였다. 또한 동 자체방역단을 직원 및 자생조직원으로 구성해 관내 교회, 경로당,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실시하였다.

목원동 사례관리 대상자 집청소 지원활동



목원동

목포지역자활센터 민들레봉사단과 목포시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 선생들은 목원동 관내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만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 및 낡은 전기장판과 이불, 그릇 등을 새롭게 지원하였다.

반찬나눔과 안부 살피기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동명동

동명동 해오름봉사단(대표 정숙희)에서는 매월 1회, 16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및 간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핀다. 특히, 관내 독지가(삼흥상회, 송하전업사, 남해호스상사)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더욱 뜻깊은 봉사가 되고 있다.

삼학동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활동 실시



삼학동

삼학동 통장단(17명) 및 동 직원들은 지난 1.28. ~ 2. 7.(2주간) 삼학동경로당 등 관내경로당(4곳), 다중이용시설 및 관내 상가 80여곳을 방문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부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만호동 만들기 운동 추진



만호동

만호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장명희)는 2020년을 맞이하여 매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취약가정 방문으로 '친절·봉사 만호동' 만들기, 자생조직 및 상인회와 함께 목포 사랑운동을 실천하며, '참여·실천하는 만호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달동, 민·관 합동 야간 방범 순찰 실시



유달동

유달동은 매월 1회(셋째주 수요일) 역전파출소, 자율방범대 연합대, 통장 등 민·관 합동(15명)으로 공·폐가 밀집지역인 서산·온금지구 야간 방범 순찰을 실시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죽교동협의회,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죽교동

새마을지도자 죽교동협의회(회장 김상운)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라면 100상자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또한 매년 취약계층 집수리와 방역활동, 취약지 청결활동 등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



북항동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하이트진로(주), 목포해경, 나눔가게 등 지역주민들이 물품을 후원하여, 관내 저소득가정 200세대, 사회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 8개소에 물품을 전달하였고, 따뜻한 목포사랑 나눔운동을 실천하였다.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실시



용해동

용해동에서는 통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내 상가밀집지역을 다니며 거리 쓰레기 줍기 등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시정 현안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며 목포사랑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多 함께 나눔 ! 新나는 세상!’ 사랑의 성품 나눔 행사



이로동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명렬)는 사랑의 성품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생계가 어려운 청장년 및 노인 독거가구 100여명에 떡국떡 등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행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총력



상동

상동에서는 지난 1. 29일부터 관내 경로당 17개소에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안내문을 배부하며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홍보했다. 또한, 6개 자생조직으로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동 방역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관내어르신들 초청 점심대접



하당동

하당동 신도시 떡방앗간(대표 서종일)과 송가숯불갈비(대표 임용철)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400여명을 송가숯불구이 식당으로 초청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 직원들과 통장단·부녀회 등 자생 조직 회원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경로당 어르신 대상, 카페 나들이 힐링사업 추진



신흥동

신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커피스미스하당점(대표 박동근)·하당노인복지회관(관장신성화)·크린하우스베이커리(대표 강인주)와 공동 협업으로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초대해 친교시간 및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카페 나들이 힐링사업'을 추진했다.

2020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 운영



삼향동

삼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동수)는 도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농작물 재배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4월~11월)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어르신 떡국대접 행사



옥암동

옥암동 통장상조회(회장 이주현)는 관내 경로당 11개소 어르신들에게 직접 조리한 떡국과 다과를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경로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부흥동

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 100명과 후원단체 30명을 모시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쌀 10kg 163포, 라면 17상자, 젓갈 2박스, 학용품 등을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전달하였다.

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기원 떡국행사



부주동

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은종, 박인지)는 하당 백두천지식당(대표 김일우 후원)에서 경로당 어르신 100여분을 모시고 "2020 어르신 100세 건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여 올 한해도 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대접하였다.

목포더하기+

■ 생생정보마당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안내

세정과

☎ 061-270-8542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종합소득·양도소득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 5월, (양도소득)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신고수단별 납세편의 마련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입력 절차없이 자동 채워 제공
- (방문신고) 5월 한 달간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납세자는 지자체·세무서 中 한 곳만을 선택 방문, 한 번에 신고처리
- (서면신고) 종합소득분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고없이도 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 기재된 세액을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61-270-8800, 8201

- 사업기간 : 2020.1.~12.

- 접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어르신

- 주소지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접종장소 :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 준비물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보험 카드, 신분증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

- 접종기관 : 목포시 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



목포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전총괄과

☎ 061-270-3651

한화손해보험(주)

☎ 1522-3556

- 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0. 6. 30.(24:00)까지

- 보험료 : 목포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목포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국내해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 1급 ~ 5급 1,000만원 한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안내

목포시보건소

☎ 061-270-4263



- **지원대상** : 첫 임신을 계획 중인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 **검진기관** : 전라남도 소재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검진가능기관(광주광역시 제외)
-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검진비용 지원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음파검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질환 관련 검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심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체검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등)◦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기타지원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전립선수치검사 등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무료검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 검진실시(비용 본인부담) ⇒ 직접 검진비용 청구(보건소) ⇒ 비용 지원

※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제출서류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등록등본2. 진료비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3.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5. 혼인관계증명서 1부6.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다를 경우)	5. 예식장계약서 1부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지)소로 가져오세요!

목포시보건소

☎ 061-270-8935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방법** : ①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한 군데 모은다.

② 가루약, 물약, 알약을 종류별로 분리해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는다.
-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등은 자체 분리수거 후 내용물만 배출

● 배출장소 및 시간

- 약국 : 인근 약국 영업시간
- 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 : 평일 09:00~18:00

목포더하기+

■ 생생정보마당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 061-270-8205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양육공백 발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247-2314~5,

276-231



-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전문 활동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모든 가정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 **이용요금** : 표준 9,650원(시간당)

※ 소득수준에 따라 표준 이용요금에서 차등 정부 지원

- **이용절차**

- 정부지원 여부 확인(행정복지센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사이트(www.idolbom.go.kr) 회원 가입 → 아이돌봄활동가 파견(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목포시 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과

☎ 061-270-8137

- **청소년증이란?**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신청대상**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 없이

☎ 1390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 3 9 0



통하는
목포

목포시 노인복지관 「제6회 두드림 작품공모전」 수상작

문경부(대성동)



끝이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나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 매일 목포시 노인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젊었을 때는 살아가는 일이 바빠 앞만 보고 달려왔다가 이제는 시간의 여유를 찾아 영어회화반에 다니고 글도 써보고 이것저것을 배운다. 늦은 나이에 배움은 쉽게 잊어버려 답답하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주변에 같이 다니는 노인들에게 비슷하게 일어난다.

최근에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겨진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유언장을 생각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 베트남 파병군인으로 참전하여 총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을 누비고 다닐 때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모든 병사들이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몹시 서운했고 반감이 가득했다. ‘죽음을 앞두고’라는 전제가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소중한 일이었다.

사람은 갑자기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정리해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전달 할 수 있을까?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이승을 떠나는 사람들은 허공을 맴돌며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인생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 성공과 실패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무리 되어 가겠지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마음도 편하고 갑자기 다가온 불행에도 어느 정도의 걱정은 줄어들고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신이 주신 시간은 다르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년마다 아니면 생 각날 때마다 유언의 글을 남겨 놓는다면 더 나은 삶과 밝고 건전한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통(通)하는 목포

■ 시민참여란



SNS 주부기자
전미숙(용당1동)

맛의 도시 목포, 근대역사 문화도시 목포, 예향의 도시 목포, 국제 슬로시티 목포 등 목포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참 많다. 거기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뷰를 자랑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듭하며 미래를 향해 친절, 청결, 질서, 나눔운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은 세계적으로 공포감과 모든 삶의 연결고리를 중단해버렸다. 특히 목포가 이번에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사태로 잠시 멈칫하고 있는 목포시의 발걸음에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나라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을 안겨준 영화감독 봉준호의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에 수상했다는 소식은 모든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그의 수상 소감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이 말처럼 목포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을 지키며 생활할 때 코로나를 예방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전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목포사랑에 앞장서는 길이 아닐까 싶다.

이에 목포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용당1동은 모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청결, 친절, 질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동부시장 상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자생조직회가 함께 손을 모아주고 있어 감사하다.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도 어느새 지나갔다.

목포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큰 희망의 씨앗을 심어 자라고 성장하는 목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목포, 사랑이 넘치는 목포 만들기에 앞장서자.

날개 없는 천사 ‘바르게살기운동 용당2동위원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용당2동위원회’가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날개 없는 천사이지 않을까 싶다. 그분들의 표정은 항상 밝고 따뜻하다. 도농상생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신안군 자은면 육지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해상 케이블카 개통 시정홍보를 하고, 분계해수욕장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었다. 또한 무안군 유교리를 방문하여 산지가격 폭락으로 폐기 예정이었던 대파 농가의 수확을 돋고 그 수확물을 용당2동 관내 어려운 이웃 및 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배부하곤 한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5명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내복을 선물하고, 회원 허평석 위원 부부는 손뜨개 수세미 300장을 관내 소외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고 기탁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용당2동 위원회’가 보여준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사랑이 되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SNS 주부기자

정미연(용당2동)



목포시정소식지 무료구독 및 작품모집 안내



▶ 구독신청 방법(택 1)

- 전화(061-270-8539) 신청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에서 신청
- 홈 → 열린행정 → 시정자료실 → 시정소식지 → 구독·해지 신청
-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우편 발송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품 모집 안내

- 참여분야 : 목포 속 이야기(시·수필·미담·사진·일러스트), 독자소감 등
 - 제출형식 : A4 1매 이내(12포인트)의 글 또는 이미지 파일(가로세로 픽셀 1,000 이상)
 - 참여방법 : 우편(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 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공보과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우 58613)
- ※ 지면사정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작품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채택된 작품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목포시보건소 277-4000